
한-EU FTA의 對韓 FDI유치 효과 및 對韓 투자계획 · 해외 투자동향 분석

2009. 12

kotra

투자조사연구팀

【 목 차 】

【 Executive Summary 】	1
I 전체 응답기업 분석	6
1. 소재지	6
2. 對韓 기투자 여부	7
3. 종사업종	8
II 한-EU FTA에 대한 인식 및 對韓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	10
1. 한-EU FTA 타결에 대한 인지도	10
2. 한-EU FTA의 긍정적인 영향	11
3. 한-EU FTA의 부정적인 영향	11
4. FTA가 동북아비즈니스허브 구축에 미치는 영향	12
5. 한-EU FTA가 주재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촉진 여부	13
6. 한-EU FTA가 對韓 투자예정 기업의 투자촉진 여부	14
7. 한-EU FTA가 對韓투자 촉진에 별 영향 없다고 답한 이유	14
III 對韓 투자계획 및 해외 투자동향 분석	16
1.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	16
2. 對韓 투자계획 여부	18
3. 對韓 투자 예정시기	19
4. 對韓 투자 예정금액	19
5. 對韓 투자 제약요인	20
6. 타국 투자계획 여부	21
7. 타국 투자시 선호지역	21
8. 타국 투자시 주요 고려요소	23
9. 기투자 한국법인의 현재 주요 담당기능	24
10. 對韓 투자시 한국법인이 주로 담당하게 될 기능	24

【 Executive Summary 】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총 13개국(북미, 일본, 유럽) 외국기업 254개사
 - 북미 29개사, 일본 90개사, 유럽 135개사
 - 한국 기진출 외국기업 103개사, 미진출 외국기업 151개사
- 조사기간 : 2009. 11. 13 ~ 12. 2
- 조사방법 : 19개 해외 KBC를 통한 설문조사

【 한-EU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 】

□ 한-EU FTA의 對韓 외국인투자 촉진효과, ‘커’

- 한-EU FTA가 주재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74%가 그렇다고 답해, 한-EU FTA의 對韓 투자유치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크게 촉진 8%, 촉진 66%, 별 영향 없음 25%, 무응답 1%

□ 한-EU FTA가 對韓 투자예정 기업의 투자 촉진

- 對韓 증액·신규투자를 계획 중인 업체 127개사(응답기업의 50%)중 51.2%가 한-EU FTA가 해당기업의 對韓 투자를 촉진 또 향후 촉진할 것이라고 응답

※ 매우촉진 2.4%, 촉진 6.3%, 향후 투자결정시 촉진 42.5%, 아무런 영향 없음 48.0%, 무응답 0.8%

□ FTA,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구축’ 비전 실현에 기여

- 전체 응답기업의 84.7%가 한국정부의 주요국 및 경제권과의 FTA 체결 노력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키는데 영향이 크거나 있다고 답해 지속적인 FTA 확대 정책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영향이 크다 20.1%, 영향이 있다 64.6%, 별 영향 없다 14.6%, 무응답 0.7%

□ 한-EU FTA 타결에 대한 인지도

- 한-EU FTA 타결의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유럽지역 기업과 북미지역 기투자기업은 인지도가 높게 나왔지만, 북미지역 미투자기업(31.6%)과 일본기업(57.8%)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소재지별 한-EU FTA 타결 인지여부 (개사, %)

구분		북미		일본		유럽		합계	
기투자	Y	9	90.0%	22	57.9%	44	80.0%	75	72.8%
	N	1	10.0%	16	42.1%	11	20.0%	28	27.2%
합 계		10	100.0%	38	100.0%	55	100.0%	103	100.0%
미투자	Y	6	31.6%	30	57.7%	57	71.3%	93	61.6%
	N	13	68.4%	22	42.3%	23	28.7%	58	38.4%
합 계		19	100.0%	52	100.0%	80	100.0%	151	100.0%

[對韓 투자계획 및 해외 투자동향 분석]

□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 ‘밝다’

-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에 대해 전체 응답기업의 72.4%가 빠르게 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해, 대체로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일본 63.3% < 북미 75.8% < 유럽 77.8%)

※ 빠른 회복 4.3%, 완만한 회복 68.1%, 정체 19.3%, 악화 6.3%, 매우 악화 1.6%, 무응답 0.4%

□ 응답기업의 50%가 對韓투자 계획 ‘있다’고 답

- 한국 투자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50%인 127개사가 있다고 답 (기투자 40개사, 미투자 87개사)
- 기투자기업중 39%, 미투자기업중 58%가 對韓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

기투자·미투자별 향후 對韓 투자계획 여부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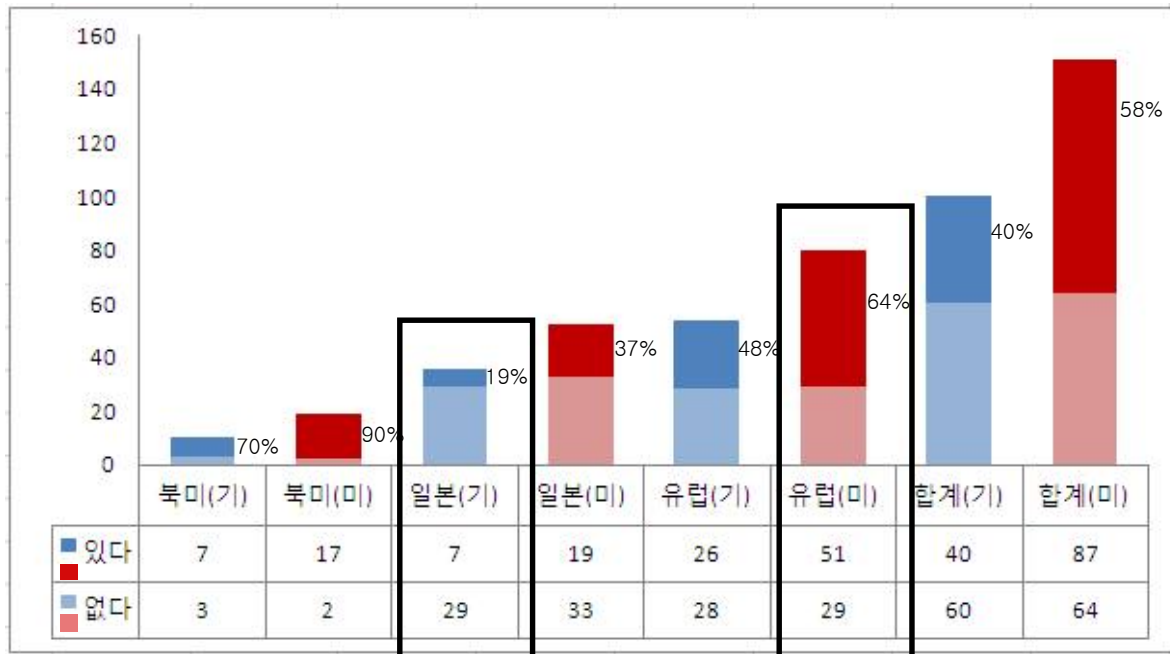
구 분	기투자		미투자		합계	
있 다	40	38.8%	87	57.6%	127	50.0%
없 다	60	58.3%	64	42.4%	124	48.8%
무응답	3	2.9%	0	0.0%	3	1.2%
합 계	103	100.0%	151	100.0%	254	100.0%

□ 반면, 일본 기투자기업의 對韓투자 계획 낮아

- 일본 기투자기업의 19%만이 對韓 증액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일본기업은 對韓투자 제약요인으로 1) 내수시장 규모 등 잠재성장률이 낮은 점과, 2) 노사분규 등 경영환경상의 어려움 등을 제시

소재지별 향후 對韓 투자계획 여부 (개사, %)



주 : 기투자기업 중 3개사는 무응답으로 불포함

□ 對韓투자는 향후 2년내, 금액은 대부분 1천만불 미만

- (투자시기) 對韓 투자 계획이 있는 127개사의 74.2%가 향후 2년내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

※ 2009년 0.7%, 2010년 50.7%, 2011년 23.5%, 2012년 및 이후 21.3%, 무응답 3.7%

- (투자금액) 63.8%가 1천만불 미만이라고 해, 투자건수 대비 투자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

※ 5천만불이상 6.2%, 1천만불이상~5천만불미만 16.9%, 5백만불이상~1천만불미만 21.5%, 5백만불미만 42.3%, 무응답 13.1%

□ 한국의 투자처로는 중국, 인도를 선호

- (투자계획) 총 응답기업의 38%가 한국외에 타국 투자계획 있다고 답

※ 있다 38%, 없다 60%, 무응답 2%

- (선호지역) 투자선호지역은 중국(26.7%), 인도(14.2%) 순

※ 중국 26.7%, 인도 14.2%, 아시아 12.5%, 미국 7.5%, 일본 5%, 대만 5%, 기타 20.0%, 미정 9.2%

(주) '아시아'는 특정국이 아닌, 그냥 '아시아'라고 표기한 경우

- 북미 기업의 경우, 중국(25.0%), 인도(21.9%) 크게 선호, '기타'에는 멕시코, 남미 등 포함

※ 중국 25.0%, 인도 21.9%, 일본 12.5%, 아시아 12.5%, 대만 6.3%, 기타 15.5%, 미정 6.3%

- 일본 기업들은 중국(45.9%) 선호 양상 두드러짐

※ 중국 45.9%, 아시아 16.2%, 인도 13.5%, 대만 5.4%, 기타 10.9%, 미정 8.1%

- 유럽 기업들은 미국(17.6%), 중국(13.7%)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기타' 답변으로 동유럽, 중동, 캐나다, 호주,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등 매우 다양

※ 미국 17.6%, 중국 13.7%, 인도 9.8%, 아시아 9.8%, 일본 3.9%, 대만 3.9%, 기타 29.4%, 미정 11.8%

I

전체 응답기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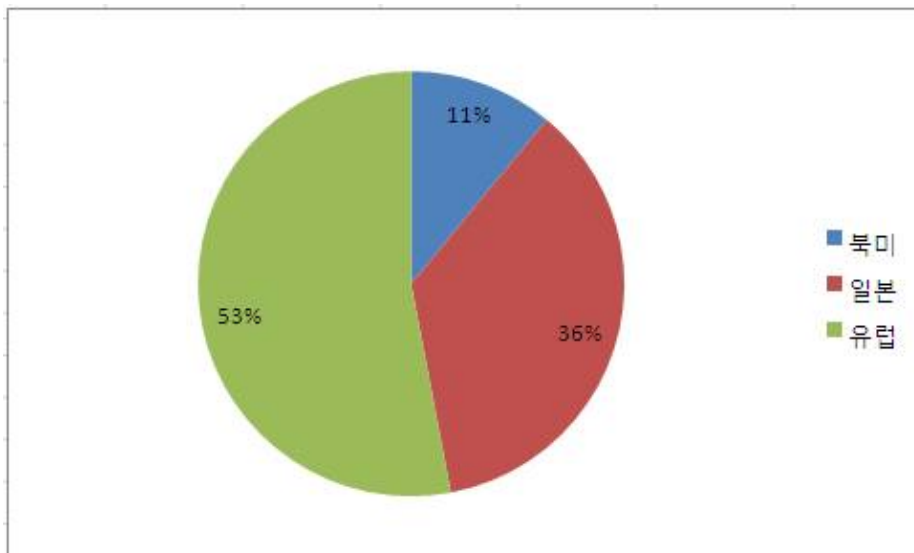
<설문조사 개요>

- ◆ 응답기업 : 한국 기진출 외국기업 103개사, 미진출 외국기업 151개사 등 총 254개사
 - * 북미 29개사, 일본 90개사, 유럽 135개사
- ◆ 조사기간 : 2009. 11. 13 ~ 12. 2
- ◆ 조사방법 : 13개국, 19개 KOTRA 해외KBC를 통한 설문조사

1. 소재지

- 총 응답기업수는 254개사이며, 유럽지역 135개사(53.1%), 일본 90개사(35.4%), 북미지역 29개사(11.4%)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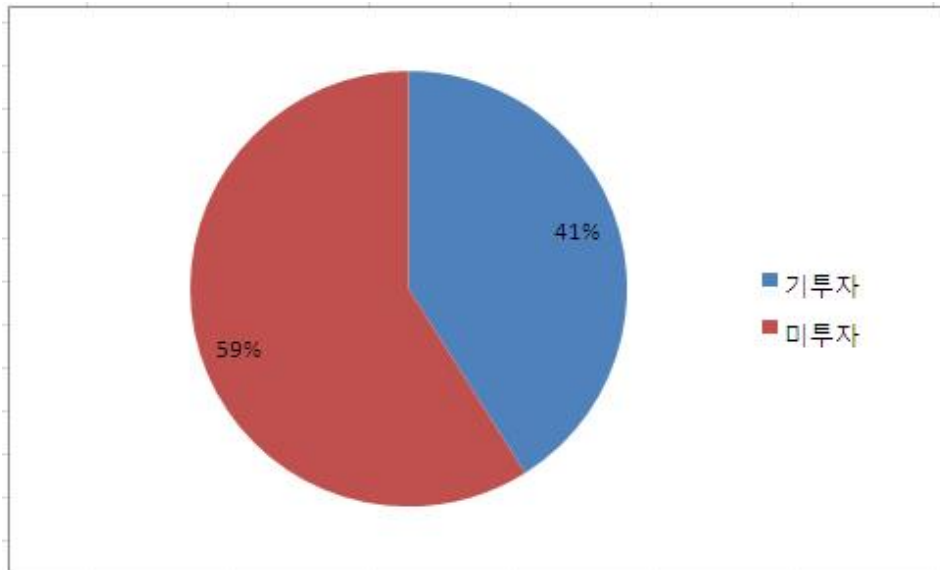
총 응답기업의 소재지별 분포



2. 對韓 기투자 여부

- 전체의 41%인 103개사가 한국에 기투자, 나머지 151개사는 아직 투자하지 않은 기업

현재 對韓 투자중 여부



- 소재지별로 보면, 한국에 기투자한 기업의 비중은 일본 (42.2%), 유럽(40.7%), 북미(34.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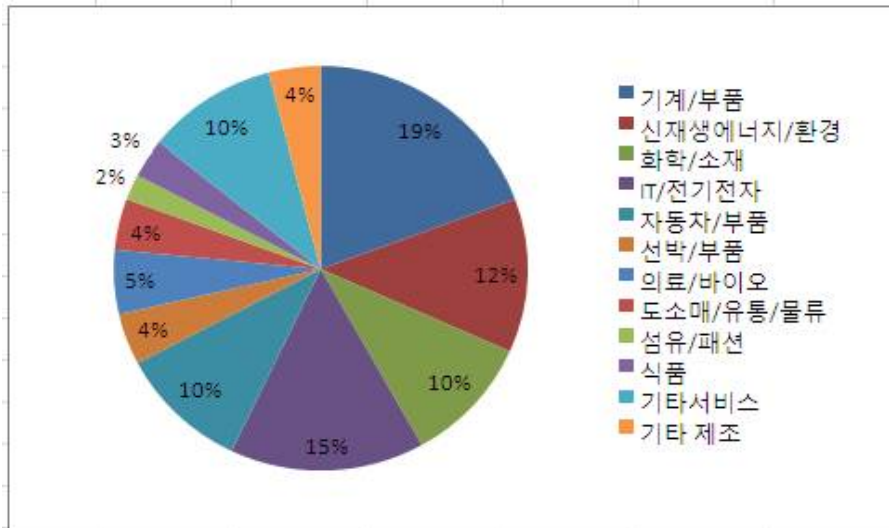
소재지별 현재 對韓 투자중 여부 (개사, %)

구분	북미		일본		유럽		합계	
기투자	10	34.5%	38	42.2%	55	40.7%	103	40.6%
미투자	19	65.5%	52	57.8%	80	59.3%	151	59.4%
합 계	29	100.0%	90	100.0%	135	100.0%	254	100.0%

3. 종사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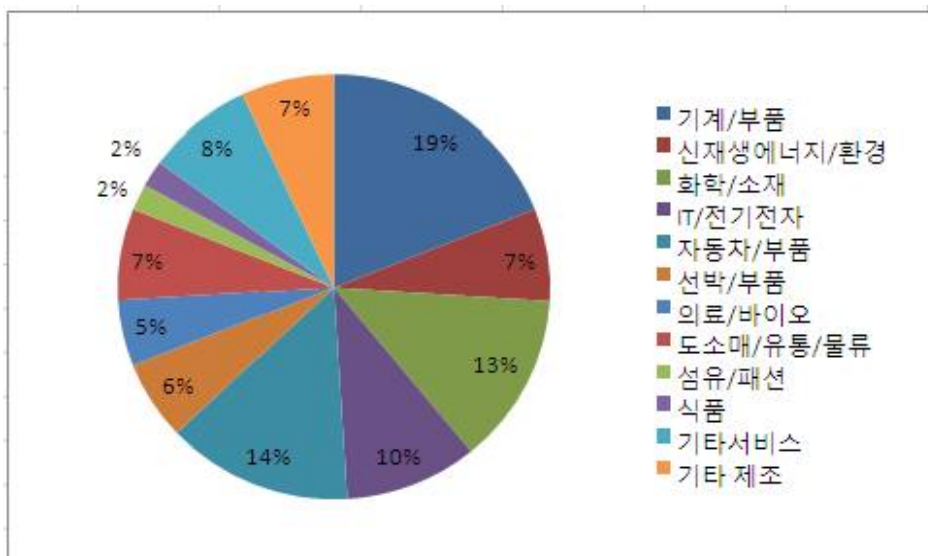
- 기계·부품(19%), IT·전기전자·소프트웨어(15%), 신재생에너지·환경(12%), 자동차·부품(10%), 화학·소재(10%) 순

응답업체 전체의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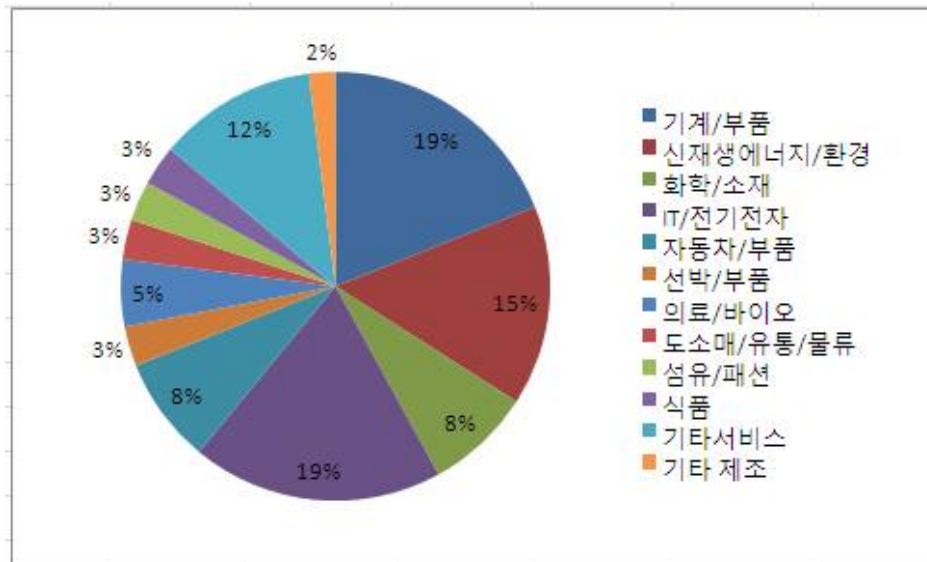
- 기투자기업의 업종 분포는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소재, IT·전기전자·소프트웨어 순

기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



- 미투자기업의 경우, 기계·부품, IT·전기전자·소프트웨어, 신재생에너지·환경 등이 53% 차지

미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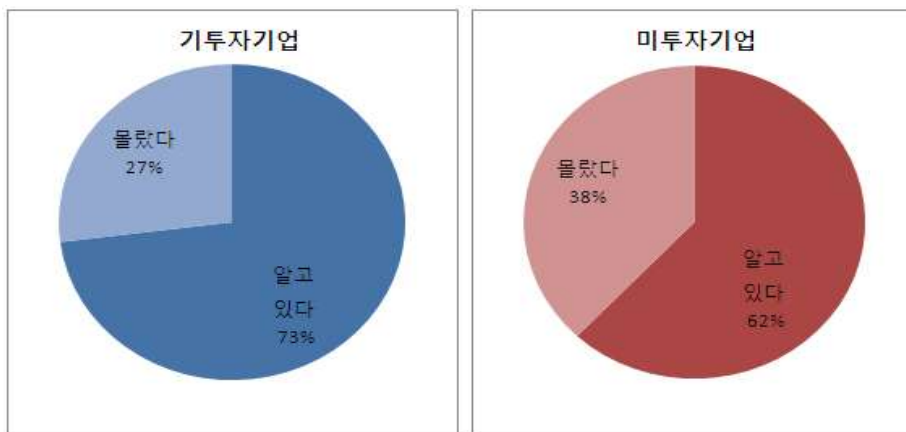


II 한-EU FTA에 대한 인식 및 對韓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한-EU FTA 타결에 대한 인지도

- 총 응답업체의 66%인 168개사가 한-EU FTA가 타결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함 (기투자기업의 73%, 미투자기업의 62%)

한-EU FTA 타결에 대해서 인지여부



- 한-EU FTA 타결의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유럽지역기업과 북미지역 기투자기업은 인지도가 높게 나왔지만, 북미지역 미투자기업(31.6%)과 일본기업(57.8%)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향후 해당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소재지별 한-EU FTA 타결 인지여부 (개사, %)

구분		북미		일본		유럽		합계	
기투자	Y	9	90.0%	22	57.9%	44	80.0%	75	72.8%
	N	1	10.0%	16	42.1%	11	20.0%	28	27.2%
합 계		10	100.0%	38	100.0%	55	100.0%	103	100.0%
미투자	Y	6	31.6%	30	57.7%	57	71.3%	93	61.6%
	N	13	68.4%	22	42.3%	23	28.7%	58	38.4%
합 계		19	100.0%	52	100.0%	80	100.0%	151	100.0%

2. 한-EU FTA의 긍정적인 영향

- 한-EU FTA가 응답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항에서 총 547건의 복수응답 나옴
- 이 중 74.4%를 차지한 상위 5개 항목이 ① 관세인하 및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20.7%), ② 한국 및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가(16.3%), ③ 연계산업의 활성화로 시장규모 확대(14.4%), ④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완화(13.7%), ⑤ 신규 사업영역으로의 확장검토 등 시장기회 창출(9.3%) 등

한-EU FTA의 긍정적인 영향 (응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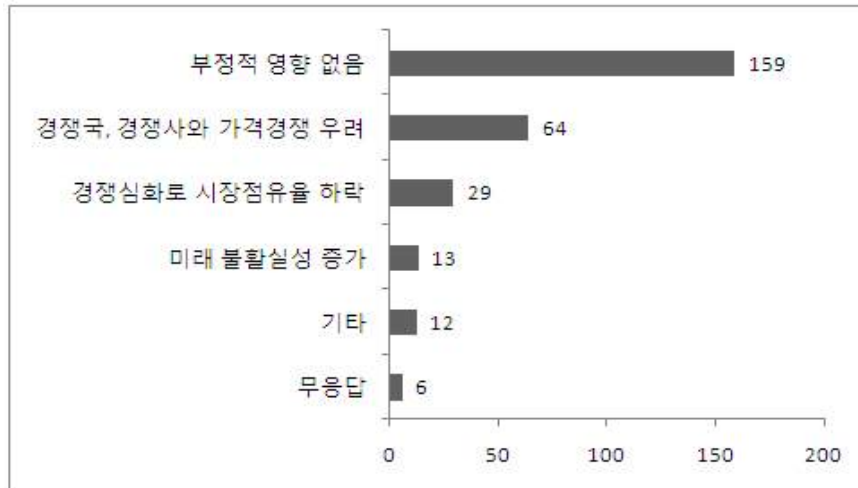


3. 한-EU FTA의 부정적인 영향

- 한-EU FTA가 응답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항에서 복수응답이 총 283건이었음
- 이 중 56.2%가 ①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답, 그 다음으로

- ② 경쟁국 및 경쟁사와의 가격경쟁 우려(22.6%), ③ 경쟁심화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 우려(10.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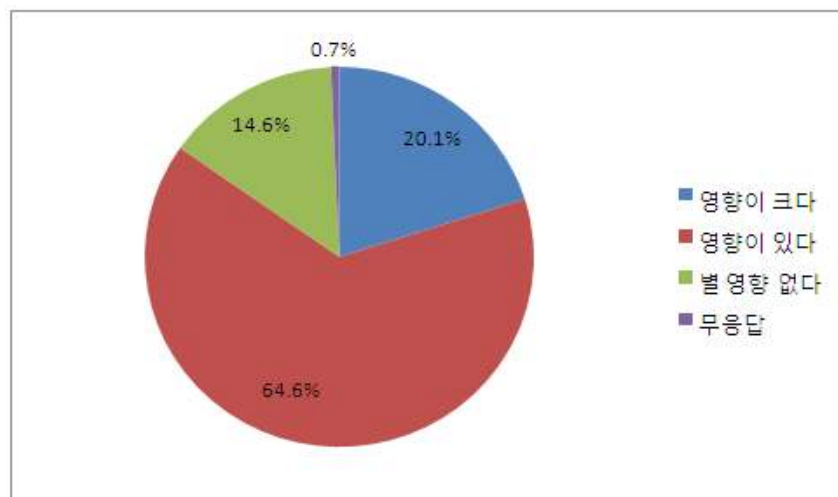
한-EU FTA의 부정적인 영향 (응답수)



4. FTA가 동북아비즈니스허브 구축에 미치는 영향

- 전체 응답기업 중 215개사(84.7%)가 주요국 및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한국을 동북아(한·중·일)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있다고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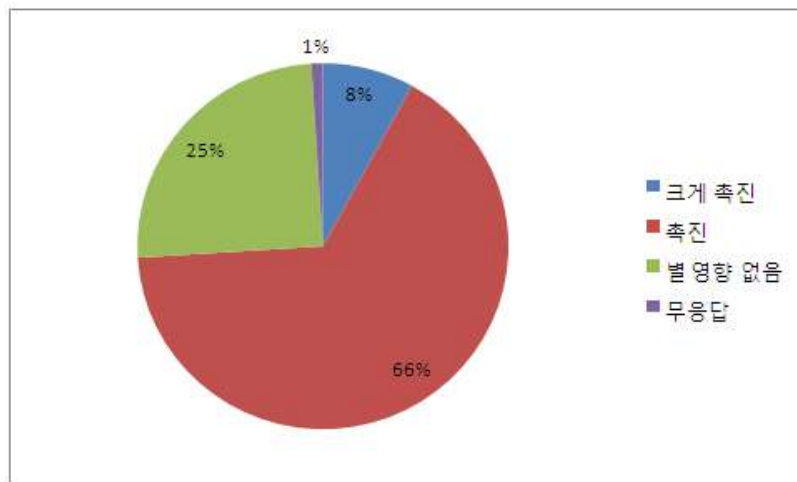
FTA가 동북아비즈니스허브 구축에 미치는 영향



5. 한-EU FTA가 주재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촉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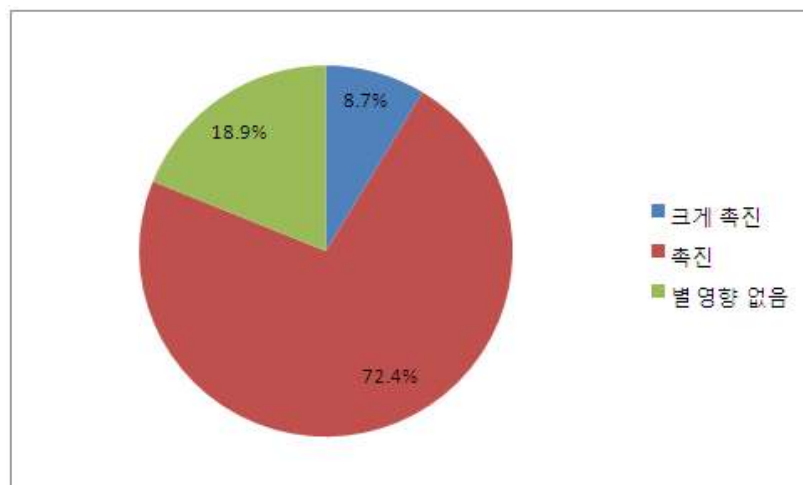
- 한-EU FTA가 동일한 소재지 내 기업들의 대한 투자를 촉진할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21개사(8%)가 '크게 촉진', 167개사(66%) '촉진'할 것이라 답함

[전체] 한-EU FTA가 주재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촉진 여부



- 반면, 對韓 증액·신규투자를 계획 중인 응답업체 127개사의 경우, 같은 질문에 무려 81.1%가 '크게 촉진' 및 '촉진'으로 답해 對韓 투자를 계획중인 기업의 한-EU FTA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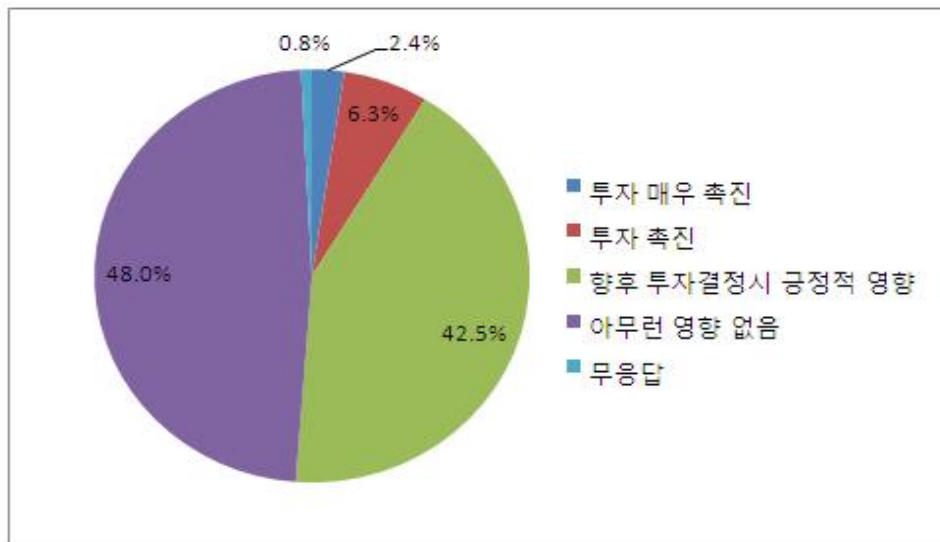
[투자예정] 한-EU FTA가 주재국 기업들의 對韓투자 촉진 여부



6. 한-EU FTA가 對韓 투자예정 기업의 투자촉진 여부

- 對韓 증액·신규투자를 계획 중인 업체 127개사(응답 기업의 50%)의 51.2%가 한-EU FTA가 해당기업의 對韓 투자를 촉진 또 향후 투자결정시 촉진할 것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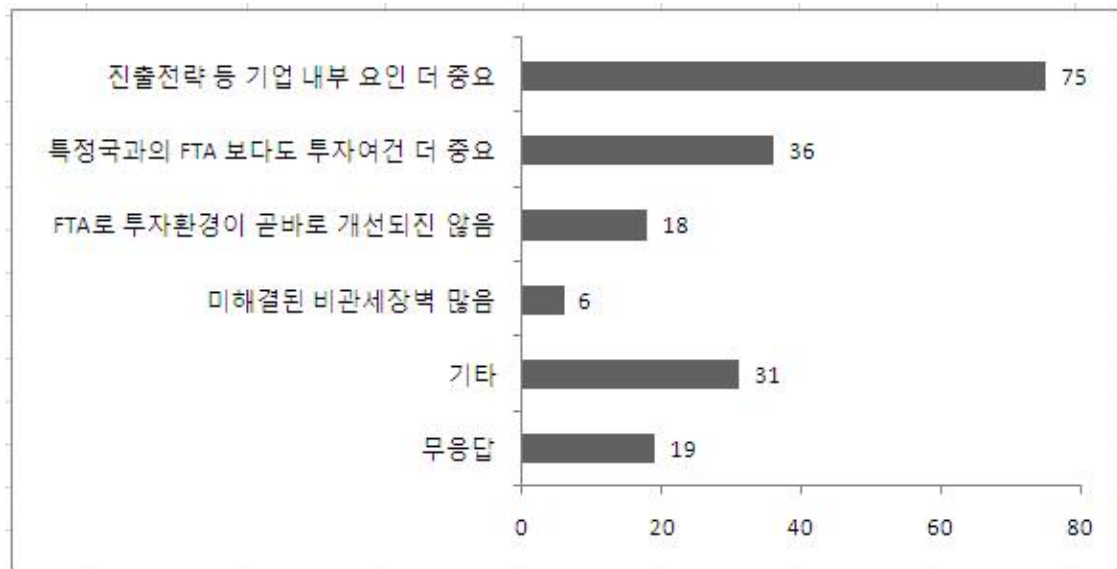
[투자예정] 한-EU FTA가 응답업체의 對韓투자 촉진 여부



7. 한-EU FTA가 對韓투자 촉진에 별 영향 없다고 답한 이유

- 한-EU FTA가 응답기업의 對韓 투자 촉진에 별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유에 대한 문항에 총 185건의 복수응답 나옴
 - 60%를 차지한 2가지 답변은 ① 타지역 투자진출 전략 등 기업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40.5%) ②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하느냐 보다도 한국 자체의 내수시장 규모, 노동사분규 발생빈도, 북한과의 관계 등 투자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19.5%)

한-EU FTA가 對韓투자 촉진에 별 영향 없다고 답한 이유 (응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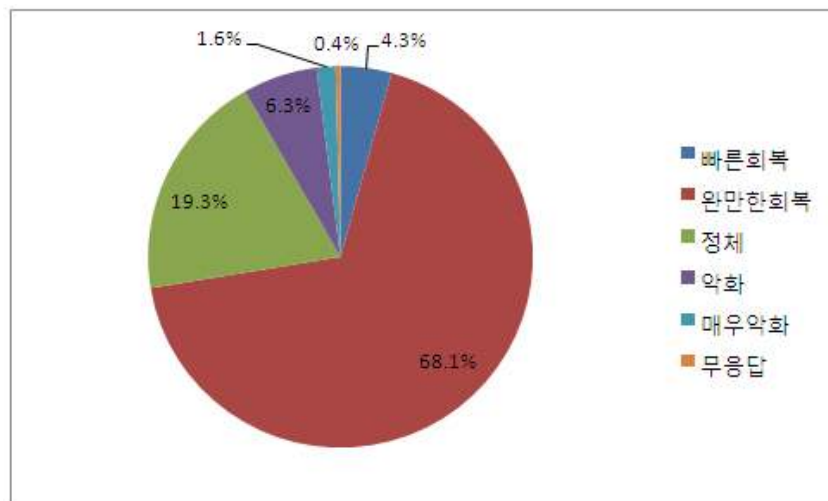
- '기타' 답변 중에는 답변기업의 비즈니스가 FTA와 전혀 상관이 없어 FTA로 인한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 한국내 고객수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 등이 있었음
- 한편, 對韓 증액·신규투자를 계획중인 업체 127개사 중 한-EU FTA가 응답기업의 對韓 투자 촉진에 별 영향이 없다고 이유에 대해 각각 ① 타지역 투자진출 전략 등 기업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49.2%), ②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하느냐 보다도 한국 자체의 내수시장 규모, 노사분규 발생빈도, 북한과의 관계 등 투자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21.5%)으로 답함

Ⅲ 對韓 투자계획 및 해외 투자동향 분석

1.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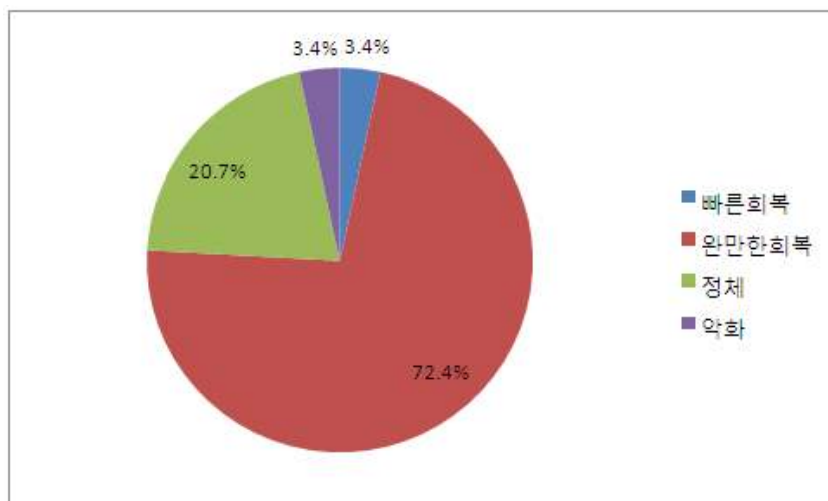
-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전체 응답기업의 72.4%가 내년도 세계경기가 빠르게 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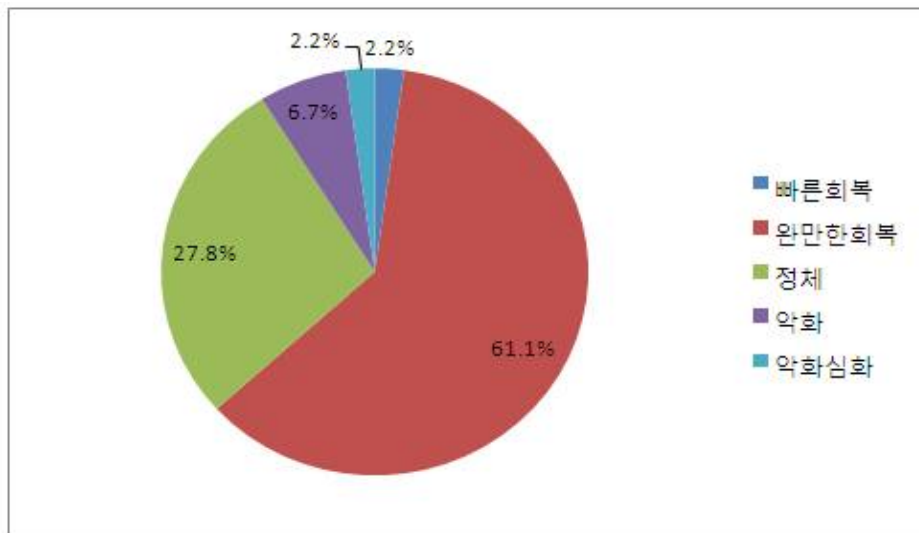
- 북미지역 기업들의 경우 75.8%가 긍정적으로 전망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 (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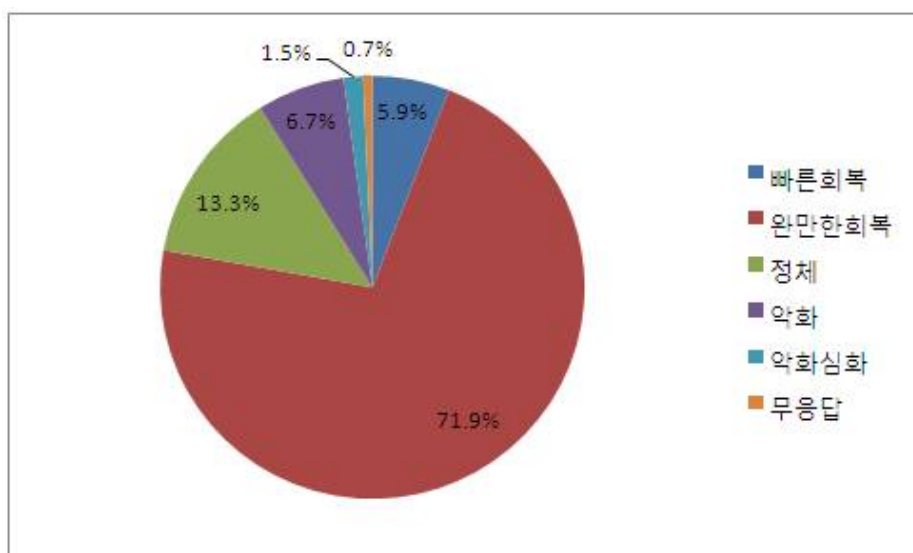
- 일본 기업들의 경우 북미기업들 보다 적은 63.3%가 내년도 세계경기가 빠르게 또는 완만하게 회복한다고 응답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 (일본)



- 유럽기업들의 경우, 가장 많은 77.8%가 내년도 세계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내년도 세계경기 전망 (유럽)



2. 對韓 투자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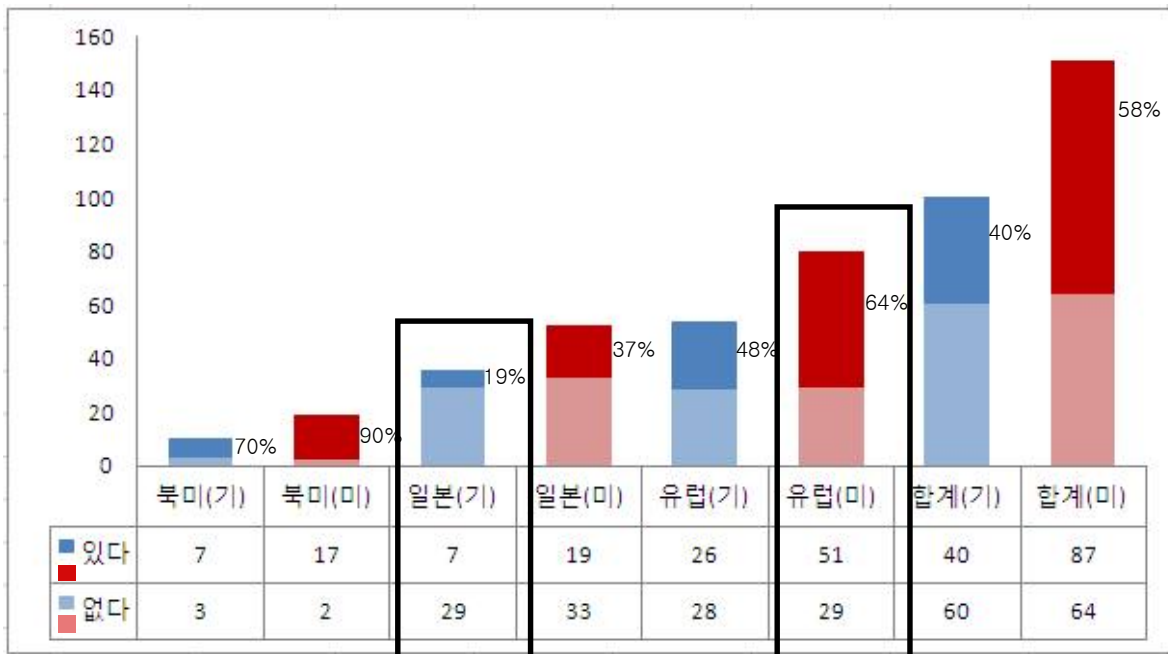
- 한국 투자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50%인 127개사가 있다고 답 (기투자 40개사, 미투자 87개사)
- 기투자·미투자별로 구분시 기투자기업중 對韓 증액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9%, 미투자기업중 對韓 신규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8%

기투자·미투자별 향후 對韓 투자계획 여부 (개사, %)

구분	기투자		미투자		합계	
있 다	40	38.8%	87	57.6%	127	50.0%
없 다	60	58.3%	64	42.4%	124	48.8%
무응답	3	2.9%	0	0.0%	3	1.2%
합 계	103	100.0%	151	100.0%	254	100.0%

- 특히 일본 기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조사 (19%만이 對韓 증액투자를 계획 중)

소재지별 향후 對韓 투자계획 여부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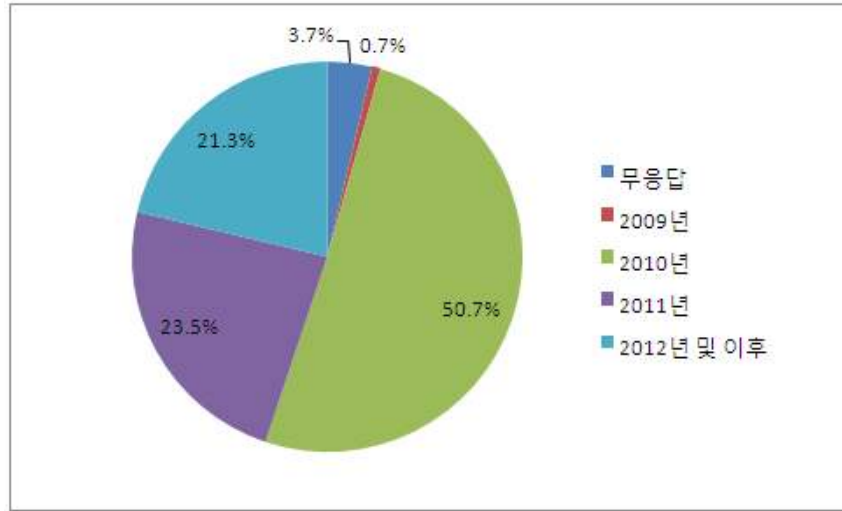


주 : 기투자기업 중 3개사는 무응답으로 불포함

3. 對韓 투자 예정시기

- 對韓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127개사의 74.2%가 투자시기를 향후 2년내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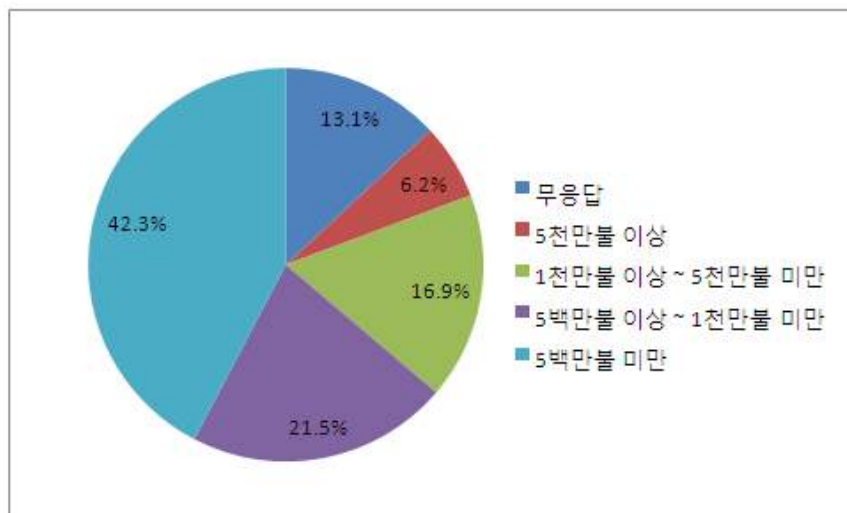
對韓 투자 예정시기 (%)



4. 對韓 투자 예정금액

- 투자금액에 대해 63.8%가 1천만불 미만일 것이라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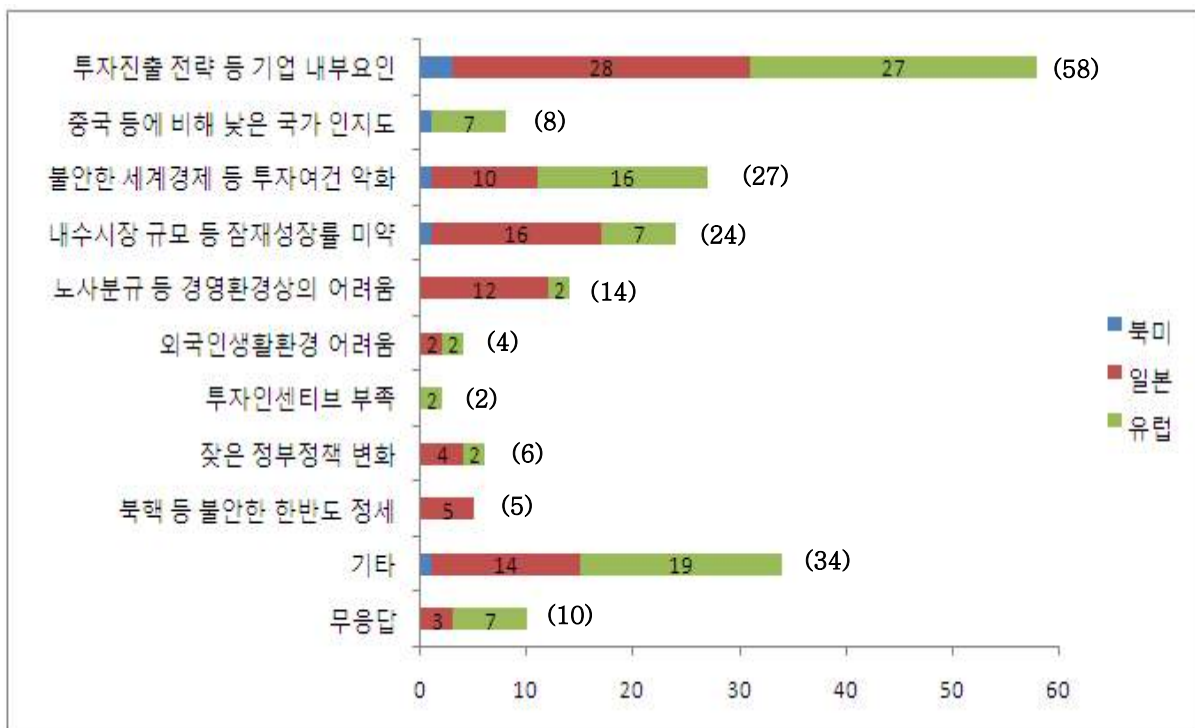
對韓 투자 예정금액 (%)



5. 對韓 투자 제약요인

- 총 192개 복수응답이 있었고, 이 중 56.8%를 차지하는 3가지 답변으로는,
 - ① 투자진출 전략 등 기업 내부요인(30.2%), ②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 등 투자여건 악화(14.1%), ③ 한국의 내수시장 규모 등 타국대비 잠재성장률 제약(12.5%) 등이 있음
 - ‘기타’를 선택한 경우로,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고 한국과는 거리차가 얼마나지 않으므로 한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거래업체수가 많지 않음, 현재 한국 매출규모 크지 않음 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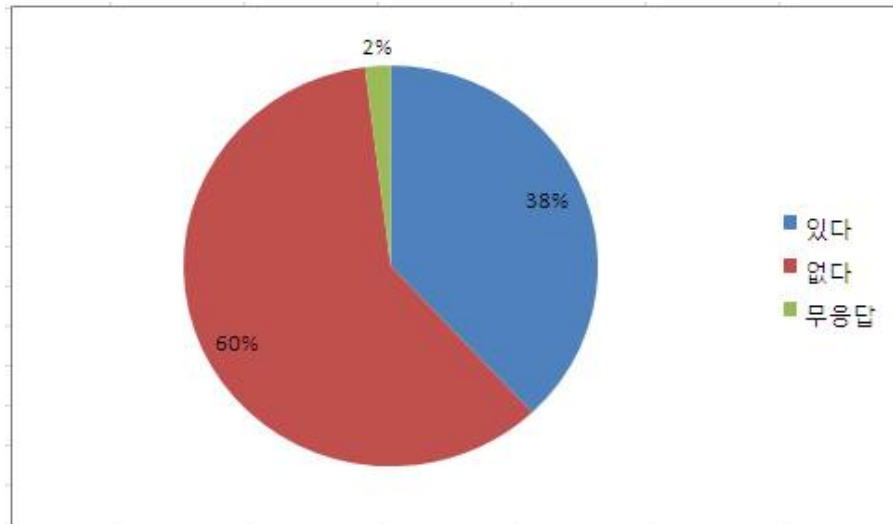
對韓 투자 제약요인 (응답수)



6. 타국 투자계획 여부

- 총 응답기업의 38%가 한국외에 타국 투자계획 있다고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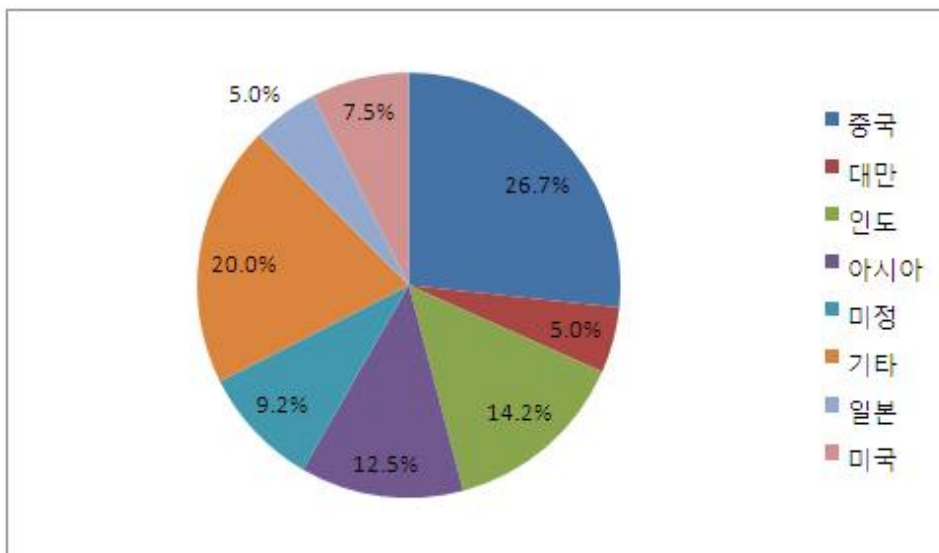
타국 투자계획 여부



7. 타국 투자시 선호지역

- 전체 응답기업의 한국외 투자 선호지역은 중국(26.7%), 인도 (14.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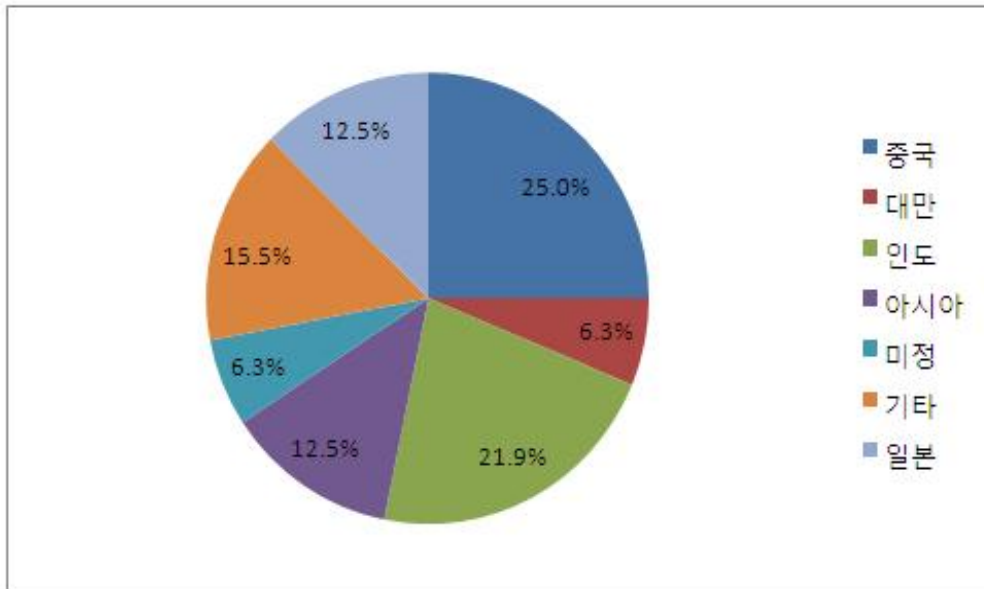
타국 투자시 선호지역 (전체)



주 : '아시아'는 특정국이 아닌, 그냥 '아시아'라고 표기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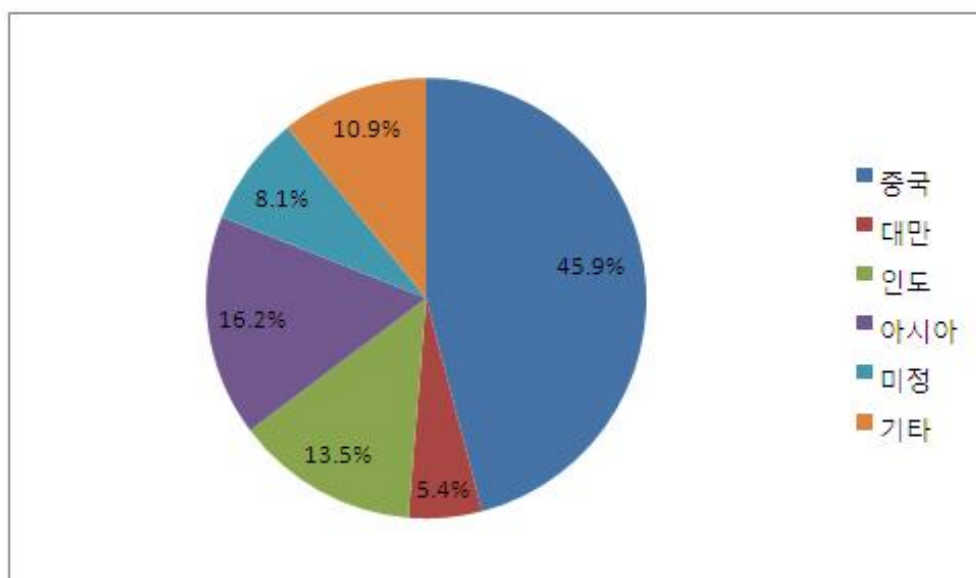
- 북미 기업의 경우, 중국(25.0%), 인도(21.9%)를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멕시코, 남미 등 포함

타국 투자시 선호지역 (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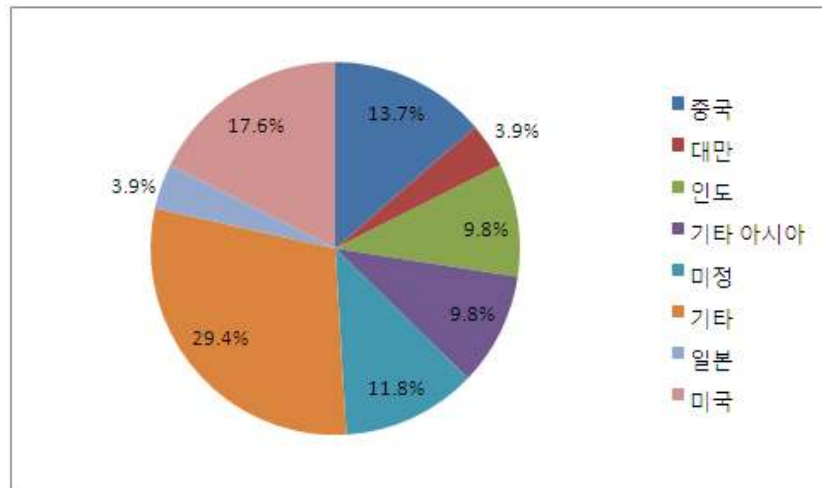
- 일본 기업들은 중국(45.9%)을 선호하는 양상이 두드러짐

타국 투자시 선호지역 (일본)



- 유럽 기업들은 미국(17.6%), 중국(13.7%) 등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기타' 답변으로 동유럽, 중동, 캐나다, 호주,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등 매우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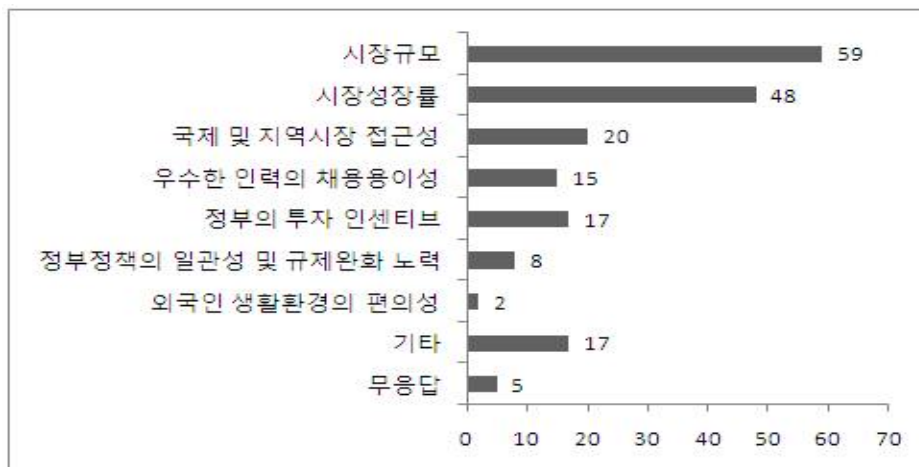
타국 투자시 선호지역 (유럽)



8. 타국 투자시 주요 고려요소

- 타국 투자계획시 주로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총 191개의 복수응답 중 66.5% 차지한 답변 3가지는,
 - ① 시장규모(30.9%), ② 시장성장률(25.1%), ③ 국제 및 지역시장 접근성(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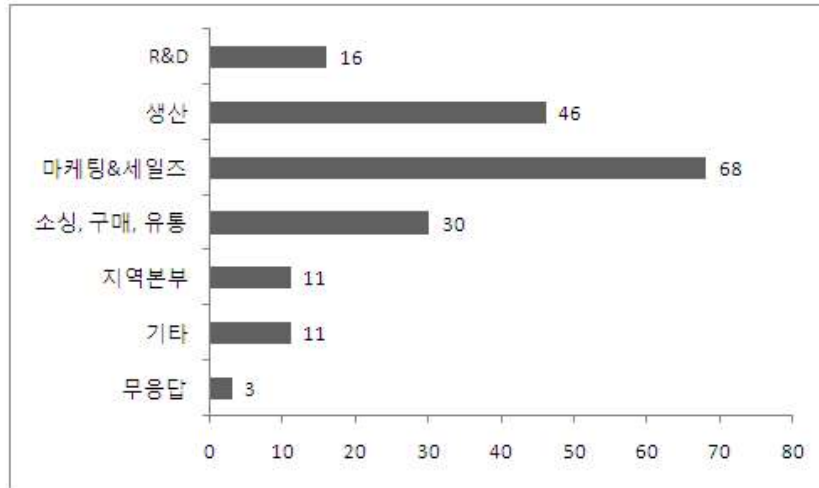
타국 투자계획시 주요 고려요소 (응답수)



9. 기투자 한국법인의 현재 주요 담당기능

- 기투자기업의 현재 한국법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마케팅·세일즈, 생산, 소싱·유통, R&D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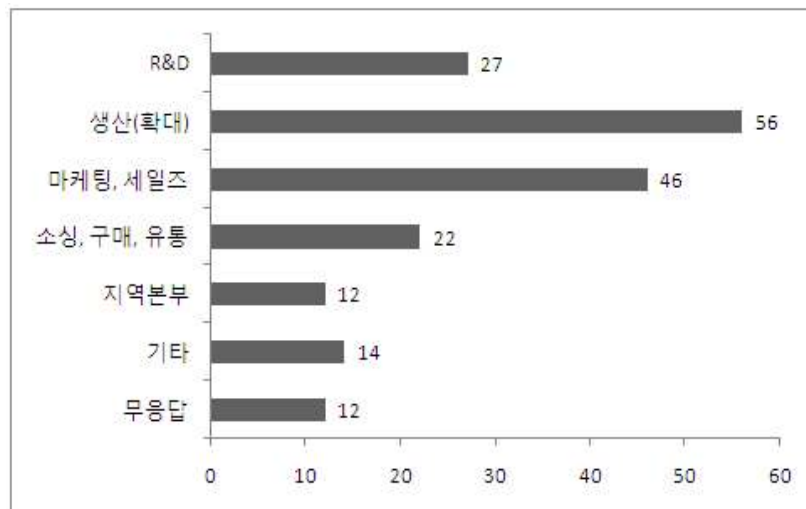
기투자기업 현재 한국법인 담당기능 (응답수)



10. 對韓 투자시 한국법인이 주로 담당하게 될 기능

- 對韓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한 127개사의 증액·신규 투자 실현시 ‘생산(1위)’, ‘마케팅·세일즈(2위)’, ‘R&D(3위)’ 부문 투자 증가가 예상됨

對韓 투자시 한국법인이 주로 담당하게 될 기능 (응답수)



끝.